



보도자료

2025.5.16.(금)

담당자 : 이학영 부의장실 김토일 선임비서관(02.784.0921)

빛의혁명 시민본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 체결 -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 추진 약속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는 5월 16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되살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국민공회 운영 추진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추진으로, 시민사회 기반 강화와 활성화, 속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빛의혁명 시민본부의 이학영 본부장과 송재봉 부분부장, 정책본부의 진성준 본부장을 비롯해 남인순, 박홍근, 민병덕, 이용선 의원이 참석해 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줬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진영종·김민문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승훈 운영위원장, 윤순철 정책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요

인사들과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송재영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 강민수 한국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윤종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이사장, 김범용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학영 본부장은 “이번 협약식은 국민이 외쳤던 희망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의 다짐을 담은 자리”라며, “정치가 국민이 염원하는 사회, ‘빛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싸웠던 날들의 열기를 기억한다”며 “이제는 거리의 결의를 실내의 실천으로 이어가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 역시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에 대해 각계의 제언이 이어져 왔다”며, “오늘 협약식은 그 의견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

